



한국소비자원, 제15대 이희숙 원장 취임

이희숙 신임 원장이 6월 7일 한국소비자원 제15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신임 이희숙 원장은 소비자 권익증진에 대한 전문지식과 현장 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가로 다양한 소비자 업무 수행을 통해 소비자 주권 실현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임 이 원장은 충북대 가정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및 미 오리건주립대에서 석사·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한국소비자학회 회장,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희숙 원장은 취임사에서 기관의 모든 의사결정에서 소비자가 중심에, 그리고 우선되어야 함을 나타내는 '소비자중심'과 한국소비자원 서비스의 혜택에서 누락되는 소비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포용적 소비자 복지 실현'이라는 기관 운영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각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의 의사소통에 기반을 둔 운영을 통해 소비자 복지 향상을 위한 상생효과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를 위해 한국소비자원 임직원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여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주길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독일 연방법무소비자보호부와 공동으로 ‘스마트폰 소비자보호 포럼’ 개최

한국소비자원은 독일 연방법무소비자보호부, 국제협력공사(GIZ)와 공동으로 스마트폰 시대 온라인 시장의 공정성 확보 및 소비자 권익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독 스마트폰 소비자보호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5월 31일(목)과 6월 1일(금) 양일간 르메르디앙 서울 호텔에서 개최되었으며, 한국과 독일 정부의 소비자정책 담당공무원, 소비자단체 및 학회, 정보통신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양국의 법적 현황 및 최신 이슈를 공유하고 소비자 권익 제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국소비자원과 독일 연방법무소비자보호부는 스마트폰 기반 온라인 시장의 공정성 확보가 디지털시대 소비자보호의 핵심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관련 시장 전반의 소비자 이슈 점검 및 개선방안 제시를 위해 이번 공동포럼의 개최를 추진해왔다.

이번 포럼은 한국소비자원 김재중 원장 직무대행의 환영사와 독일 연방법무소비자보호부 헬가 슈프링에네어(Helga

Springeneer) 소비자정책국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스마트폰 기반 온라인 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성 확보’, ‘디지털화의 제2물결’ 주제 발표, ‘소비자의 디지털 주권 확보를 위한 방안’ 논의 등이 이루어졌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포럼을 통해 한-독 양국이 최신 소비자 이슈를 공유하고 미래 소비자보호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 데에 큰 의미를 두고, 향후 디지털경제 소비자권익 제고를 위한 국제적 공조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